

경기도 AIDS 감염자 관리 실태

왕 영 애 / 경기도청 보건과

1. 도내 에이즈발병과 감염실태

'87년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자(여자 1명)가 보고된 이후 감염자 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 감염자 수는 60명(남 51, 여 9)으로 감염경로는 <표1>과 같다.

2. 에이즈감염 예방

세계 각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더욱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역전, 터미널, 시장 등의 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대 주민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지난 '96년에는 에이즈항체 검사 실적이 247,933건이었다.

3. 에이즈감염자 관리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건교육(월 1회)과 건강관리(정기 면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건강 수칙을 통해 전파 방지는 물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기면역 검사 결과에서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감염자(CD4 세포수 500이하)에 대해서는 발병 억제제(AZT)투여와 진료를 위해 전문 진료기관에 의뢰하고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전문진료 지정병원>

- 성 빈센트 병원(수원시 팔달구 지동)
- 동수원 병원(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부천세종 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한편 '96년 경기도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750만원이 지원되었다.

4. 감염자 관리상 문제점과 사례

국립보건원에서 최종적으로 HIV항체 양성자임이 판정되면 보건복지부를 거쳐 역학조사 지시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위에 알려지는 경우도 간혹있어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사례도 있어왔다. 또한 감염자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혈액검사를 필요 하게 되어있지만 배우자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혈액검사등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감염자 본인이 감염사실을 스스로 배우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도

<표1>

(단위 : 명)

계 (명)	외국여행의 감염	내국에서 감염					
		동남녀	동남연애	남남연애	면역기	기타	합계
60	9	17	13	3	3	4	11

불구하고 감염자 대부분이 가족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감염자 관리지침상 정기적 면담과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있으나 일부 감염자의 경우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한 절망감으로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안된 감염자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감염자중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나 생보자 신청시 감염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기피하므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외에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딱한 사례가 일부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일부 여자감염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완치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절망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정신적 치료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 에이즈 감염자 고의헌혈에서와 같이 도내 한 감염자 김 모씨(23)가 본인의 감염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감염재확인 및 전염목적을 갖고 작년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헌혈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는 87년 법제정 이후 고발초치된 첫 케이스가 되었다.

(87년에 제정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2항에는 혈액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주최로 열린 에이즈 예방 교육

또는 제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염자를 무료로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감염자들끼리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일정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사회에서 이를 도와야겠다는 사회적관심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는 에이즈치료약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기관 등의 충분한 연구비 및 행정지원으로 감염자 모두에게 치료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감염자관리를 위한 신상파악시에 감염자의 생계능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설정하고 생계능력정도에 따라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주어지고 이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외에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어 나아가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관심과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A

생계능력정도에 따라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주어지고 이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외에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어 나아가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관심과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